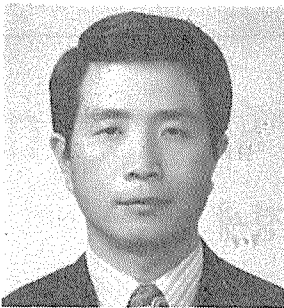


世界石油産業의 構造改編現況과 展望



徐 光 晁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經博〉

I. 1次石油波動 前後의 石油産業

石油은 19세기 중엽 美國에서 油田이 발견됨으로써 燃料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이후 石油은 기존의 燃料보다 깨끗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의 便宜性이 크다는 장점이 인식됨에 따라 점차 그 사용이 확대되어 갔다.

이에 따라 스탠더드·오일社(Standard Oil Co.)가 설립되고 본격적으로 石油을 생산·판매하게 됨으로써 石油産業이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同社는 19세기말까지 美國 石油業界에서 거의 독점적 지위를 누렸으나, 獨寡占規制法이 실시됨에 따라 해체되고, 오늘의 메이저들이 출현하게 됨으로써 石油産業의 규모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들 메이저가 20세기 초반 이후 中南美와 中東地域으로 본격적인 진출을 하여 石油을 개발·생산하게 되면서 石油産業은 세계적인 산업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이 당시 메이저들은 政治, 社會 및 文化的으로 낙후된 후진국에 진출하였기 때문에 石油探査로부

터 開發, 生産, 價格 및 販賣등 石油에 관한 모든 것에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세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고 있던 시대였지만, 저렴한 생산비에 힘입어 독점적인 利潤을 얻을 수가 있었다. 20세기 중반 이후 石油가 石炭을 代替하여 主宗 에너지源으로 자리를 굳히고, 需要도 급증함에 따라 이윤도 증대되어 石油産業은 급속한 성장을 이룩하게 되었다. 1960년 產油國들이 메이저의 횡포에 대항하기 위해 OPEC(石油輸出國機構)를 창설하였지만, 당시만 해도 이 기구의 영향력은 미미하였으며, 石油産業은 여전히 호황 국면에서 장족의 발전을 할 수가 있었다.

최악의 경제침체

1970년대에 들어와 에너지多消費型的인 經濟構造로 인해 世界石油消費가 급증하게 되자 드디어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市場需給事情의 변화에 힘입어 OPE

C產油국이 石油에 대한 主權回復과 동시에 淸—키퍼戰爭에 대한 보복조치로 油價를 대폭 인상시킴으로써 1次石油波動이 발생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次石油波動은 세계경제 뿐만 아니라, OPEC產油국과 世界産業에도 엄청난波及效果를 미쳤다. 세계경제는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침체 속으로 빠져 物價가 두자리 숫자로 뛰는가 하면 失業도 대량 발생하였다. 이에 반해 產油국들은 엄청난 石油輸出代金を 가득하는 한편 石油産業도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되었다.

이러한 利潤增大는 세계 석유수급사정이 안정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곧 사라지지는 않았다. 이는 油價가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이에 따라 메이저들이 在庫備蓄을 통해 가격상승에 따르는 이윤증대의 기회를 잘 이용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앞지르는 市場与件下에서 稼働率을 높여 제품판매를 확대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증대된 이윤을 바탕으로 石油産業은 판매망을 확충하는 한편 생산시설의 확대에 나서게 되었다. 또한 여유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아 새로운 油田開發에도 과감하게 투자하였다. 일부 石油会社들은 代替에너지 사용이 강조됨에 따라 石炭의 液体化 및 가스化, 新에너지의 개발등의 사업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綜合에너지産業化를 지향하게 되었다.

石油産業의 호황

공전의 호황을 누리게 된 石油会社들은 기업규모, 매출액 및 이윤 등에 있어서 전체 산업 및 기업을 망라하여 선두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엑슨社(Exxon)는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를 제치고 판매액 1위의 자리를 점하게 되었으며, 기타 대부분의 메이저들도 10위권 이내에 들게 되었다.

石油産業의 호황은 開途國과 OPEC產油국들에게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原油輸入에 막대한 外貨를 지출함으로써 국제수지에 큰 어려움을 받아 오던 開途國들도 石油의 안정적 확보와 외화절약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발전을 위해서도 石油産業이 필요불가결하다는 판단하에 본격적인 육성에 나서게 되었다. 印度, 싱가포르를 비롯한 많은 개도국들이 精油工場을 신설 혹은 증설하여

독자적으로 內需를 충족시킨다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한편 OPEC產油국들도 上流部門에서 생기는 이윤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下流部門에서 발생하는 이윤까지 획득하고자 精油 및 石油化学工場을 세웠다. 이 결과 世界精油施設規模는 1次波動 이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나게 되었다.

II. 2次石油波動과 石油産業의 構造的 變化

79년 이란의 政變과 80년에 야기된 이란—이라크間的 戰爭으로 인해 세계석유수급에 심각한 供給不足事態가 초래되었다. 이에 油價는 또다시 급등하게 되어 現物價格은 40달러선을 훨씬 넘어서고, 公示價格도 34달러선으로 인상되었다. 油價가 재급등하게 되자 세계석유산업의 수익도 재차 대폭 증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윤증대는 82년에 접어들어 供給過剩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점차 사라지고 지금까지 호황을 누리왔던 石油産業도 구조적 불황 속으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石油産業의 不況은 8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불황의 조짐은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이유로서 1次波動 이후 OPEC產油국들이 종래 메이저들이 장악하고 있던 原油의 開發·生産·판매 및 가격등에 관한 거의 모든 권한을 빼앗아 독자적으로 행사하게 됨으로써 메이저들은 上流部門쪽에서 이윤을 얻을 수 있던 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점이다. 그 당시까지 메이저들은 油價에 일정폭의 마진을 계산하여 넣음으로써 막대한 이윤을 얻을 수 있었으나, 1次波動을 계기로 이것이 불가능하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1次波動때의 대폭적인 油價上昇에 따른 價格 및 所得效果가 2次波動 이전에 이미 나타나게 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소비국들은 에너지危機에 대처하기 위해 消費節約 및 使用効率化를 적극 추진하였고, 일부 국가들은 과감히 산업구조를 조정하여 에너지소비를 대폭 줄였던 것이다. 또한 소비국들의 외화절약, 국제수지개선 및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겨냥하고 代替에너지開發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石油의 消費量도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로 인해 에너지소비증가율은 GNP성장을 하회하게 되었다.

石油産業不況의 요인

2次波動을 전후하여 石油産業을 불황속으로 밀어넣은 직접적인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1次波動때의 높은 油價에 자극을 받은 英國, 멕시코등의 非OPEC산유국들과 많은 群小石油業者들이 경쟁적으로 油田開發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非OPEC産油국으로부터의 生産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石油増産은 소비절약 및 代替에너지 開發과 더불어 공급과잉상태를 발생시키는 데 큰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로 經濟發展 및 生活수준향상 등으로 인해 重質油수요가 줄어드는 것에 비해 高급輕質油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需要構造의 變化에 따르는 적정제품의 원활한 공급을 하기도 어렵게 되었다.

셋째로 82년 하반기에 와서 드디어 공급과잉상태가 나타나 現物價가 平均公示價格을 크게 하회하게 되자 安定的 供給을 하기 위한 장기계약에 얽매어 있던 메이저들은 上流部門쪽에서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네째로 石油消費의 減少로 인해 下流部門쪽에서 치열한 판매 및 가격경쟁이 나타나게 되어 石油産業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여건변화로 인해 石油産業은 上流部門에서 얻은 利潤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下流部門쪽에서도 가동률 저하, 유틸시설의 증대 및 치열한 경쟁에 따른 할인판매 등으로 격심한 이윤감소 및 재정적자를 감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82~83년 사이에 世界石油産業의 가동률 현황을 살펴보면, 유럽지역이 제일 낮은 60% 정도이고, 北美地域이 70%에 불과하며, 日本은 60~65% 사이에 머물고 있다.

III. 不況의 타개책

世界石油産業이 수요감퇴, 공급과잉, 메이저와 OPEC産油국間的 關係變化, 가동률저하, 유틸시설 増大, 제품에 대한 소비패턴의 변화 및 이윤감퇴 등으로 인해 구조적 불황에 빠져 들어 長期化할 조짐을 보이자 石油會社들은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장기적인 対策을 강구하였다. 이들은 대책의

基本方向을 需要 및 價格에 관한 市場事情이 불확실한 상황하에서는 옛날과 같이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을 연결시키는 경영전략은 성공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을 별개의 것으로 하여 시장여건 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갖추는 데 두었다. 또한 이들은 경영의 合理化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 판단하고 生産費를 절감시켜 財政赤字를 黑字로 조속히 反轉시키는 데에 최우선순위를 두었다.

구체적인 対応策으로서, 우선 上流部門쪽에서는 장기계약은 비상시기에 대비하여 가능한 한 최소로 줄이고, 이에 반해 現物市場을 더욱 많이 이용하며 장기공급은 英國과 美國의 先物市場을 활용하는 쪽으로 方向 전환을 모색하였다.

둘째로 OPEC産油국으로부터 제품생산을 위해 필요한 原油를 구입하는 것에만 국한하지 않고, 중간거래에도 적극 참여, 1次商品去來와 마찬가지로 거래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액을 얻어 이윤을 증대시키는 방안도 강구하였다.

石油産業의 대책

셋째로 공급과잉이 장기화되고 油價가 계속 不安定할 것으로 전망하고 재고비축은 최소한으로 축소시켜 적자폭을 줄이고자 하였다.

下流部門쪽에서는 첫째로 상당기간 동안 수요부족으로 재가동 가능성이 희박한 설비가 많다고 보고 경제성이 없는 유틸시설을 완전 폐쇄시키고, 가동률을 높이는 데 최대의 努力을 기울였다.

둘째로 소비패턴의 變化에 맞추어 重質油 분해시설을 하루속히 신설하여 輕質油를 증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中東産油국으로부터 高급경질유를 구입하는 것보다는 배럴당 3~4 달러 정도가 싼 멕시코 혹은 베네수엘라産의 重質油를 구입하여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셋째로, 경제성이 낮은 판매망을 대폭 정비하고 이에 따른 제품의 잉여 및 不足物量은 現物市場을 통해 처분 혹은 구입하는 方法을 강구하였다.

네째로, 이윤증대에 기여치 못하는 자산은 과감하게 정리하여 은행빚을 갚거나 분해시설의 신설에 투자하고, 노동력도 축소시켜 생산비를 절감시키고자 하였다.

파급효과

이렇게 석유산업이 不況을 타개하기 위해 과감한 대응책을 세워 대처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첫째로, 石油産業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수급 및 가격변동에 따라 얼마든지 호황 혹은 불황속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으며, 석유도 다른 1次商品과 동일한 위치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둘째로,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의 양쪽에 모두 중간거래에 역점을 두게 되자 現物市場이 활발하여지면서 최근에는 거래량도 40%선까지 육박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세째로, 분해시설의 신설 및 증설로 인해 重質油 수요는 점차로 늘어나는 반면에, 輕質油 수요가 줄어들게 됨으로써 현재의 과잉공급상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일 뿐만 아니라, 油價도 하락의 압력속에서 계속 불안정한 추세를 나타내게 된 것이다.

네째로, 石油産業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부득이 재고방출을 단행하게 됨에 따라 비상시를 대비한 원유비축은 企業이 하는 것이 아니라, 國家가 당연히 책임져야 할 사항이라는 인식이 강화된 것이다.

다섯째, 油價下落으로 代替에너지 開發의 경제성이 사라지게 되자 이와 같은 代替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민간업계의 관심이 줄어들게 된 점이다.

끝으로는, 경영의 合理化를 위해 통·폐합, 합병 및 자산매입·매각등을 과감히 단행함으로써 감량경영이 어느 정도 체질화되는 실정이고, 앞으로는 효율적이고 신축성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IV. 石油産業의 전망

世界石油産業은 需給市場의 環境變化에 신속히 적응하고 경영의 合理化를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고비를 겨우 넘길 수가 있었다. 하지만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需給 및 價格의 급격한變動과 OPEC 產油國과의 관계변화로 인해 石油産業이 구조적 不況속으로 빠졌다는 事實을 상기한다면, 이들 변수의 움직임에 따라 다시 불황속

으로 빠져 들어갈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금년 초까지만 해도 예상하였던 수요가 低迷하는 가운데 OPEC 산유국들이 增産을 하게 되자 83年과 같이 또 다시 油價引下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예측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상한파로 계절적인 수요가 대폭 증가하면서 OPEC 產油國間에 생산량 할당에 대한 조절이 이루어지고, 또한 OPEC 및 非OPEC 產油國間에도 生産 및 價格에 관한 타협이 이루어짐으로써 油價下落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에는 이란—이라크間的 전쟁이 격화되고 호르무즈해협의 봉쇄위협이 고조되자 現物價가 公示價에 접근하면서 상회할 조짐마저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러한 油價強勢는 어디까지나 단기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 아직도 2次波動때의 油價上昇의 여파가 남아 있어, 당분간 석유소비는 절약 및 효율적 사용등으로 인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공급은 약간 과잉된 상태 속에 계속 머물 것이고, 油價도 불안정한 추세를 오래 보일 것이라 한다.

世界石油産業은 이상과 같은 전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不況을 타개하기 위한 대응책의 수립과정에서 長期的인 측면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전망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석유산업이 나아갈 進路를 추측하여 보면, 대충 다음과 같으리라 예상된다.

우선 전체적으로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이 계속 별개의 것으로 다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上流部門쪽에서는 첫째, 現物市場의 利用度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중간거래의 중요성 및 신축성도 상당히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물론 재고비축은 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先物市場 활용을 상당히 擴大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세째로, OPEC 產油國의 정유시설이 곧 완성되면 판매경쟁은 더욱 치열하여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產油國은 중간거래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會社를 설립하여 앞으로 다가올 경쟁에 대비한 사전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下流部門쪽에서는 첫째로, 重質油가격이 輕質油가격 수준으로 접근할 때까지 분해시설을 증설하여 제품공업에 신축성을 가하면서 이윤극대화를 시

도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경영합리화는 계속 추진하면서 非經濟的인 시설 및 代替에너지 開發事業에는 經濟性이 생길 때까지 상당기간 동안은 참여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과 같은 石油産業의 進路를 전문가들의 장기전망에 따라 1990년대까지 연장시켜 예측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겠다.

첫째로, 油價上昇이 충분히 흡수되어 石油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80년대 말경에 가면, 重質油가격이 輕質油가격에 접근하게 되고 경질유 수요증가현상이 나타나면서 분해시설의 증설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공급과잉상태가 사라지면서 油價도 상승세로 전환하게 되면, 石油産業은 현물시장의 活用을 축소시키고, 다시 장기계약쪽으로 方向을 전환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세째로, 이 때에 가서 비로소 석유산업은 완전히 不況의 늪을 빠져나오게 되고 다시 호황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이윤증대로 資金事情이 호전되면 새로운 油田개발 및 代替에너지 開發등의 신규사업에 적극 介入하지 않을까 판단된다.

V. 우리 産業에 주는 示唆点

2次石油波動 이후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石油消費의 증가율이 경기침체, 소비절약, 使用의 효율화 및 代替에너지 使用의 擴大등으로 인해 현저히 감소하였다. 더우기 급년에 들어오면서 소비절약이 더욱 강조되어 石油消費의 10%를 절감시킬 계획을 세우고 있어 石油소비는 실질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아직 실시되지는 않고 있지만 石油製品價格의 自律化도 조만간에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産業도 世界石油産業이 체험한 것과 거의 비슷한 장기적이면서 구조적

인 不況 속으로 빠져 들어갈 時점에 도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에 따라 不況을 극복하기 위한 対応策을 마련함에 있어 세계석유산업이 택한 경영 전략을 참고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으며, 그렇게 할 가치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인다.

基本方向

대응책의 基本方向에서 참고로 하여야 할 사항은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을 별개의 것으로 하여 시장여건에 따라 신속하고도 신속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영의 合理化를 이룩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선 장기계약은 가능한 한 축소시키고, 現物市場과 先物市場을 많이 利用하는 方向으로 나아가고, 재고비축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소비패턴의 變化에 적응하면서 重質油와 輕質油간의 가격차이에서 오는 利点을 利用하기 위해 분해시설을 서둘러서 증설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판단된다.

세째로, 中東산유국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와 가동률 제고를 위해 下流部門쪽에서의 중간거래도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로, 油價자율화에 따른 치열한 경쟁에 대비하여 판매망, 생산체계 및 경영조직 등을 재정비하고, 경영의 합리화를 達成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다섯째로, 海外정보를 신속히 입수·분석하여 世界市場의 동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上流部門과 下流部門에서 각각 중간거래가 증시되는 세계시장의 추세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끝으로, 무엇보다도 더욱 중요한 것은 대응책 마련에 苦心하고 있는 石油産業을 도우는 의미에서 國家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을 분명히 하고 이를 신속히 실천에 옮김으로써 상호협조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 하겠다. *

부정·부패·인플레이心理를 追放하자